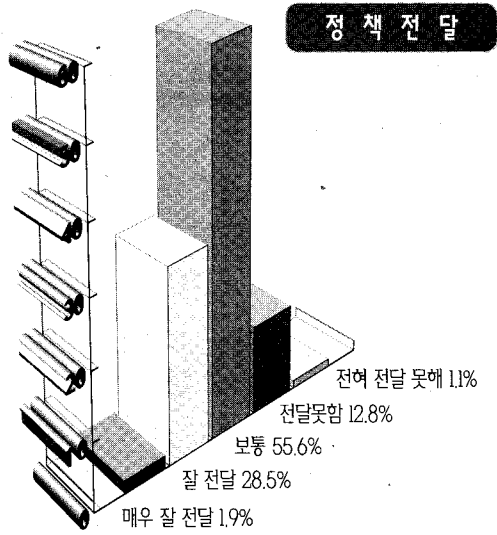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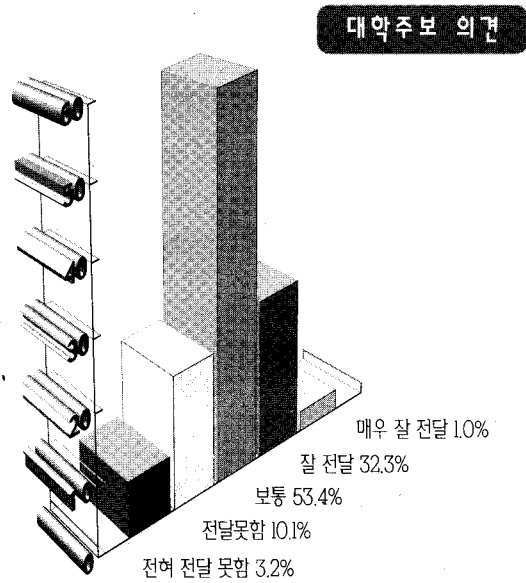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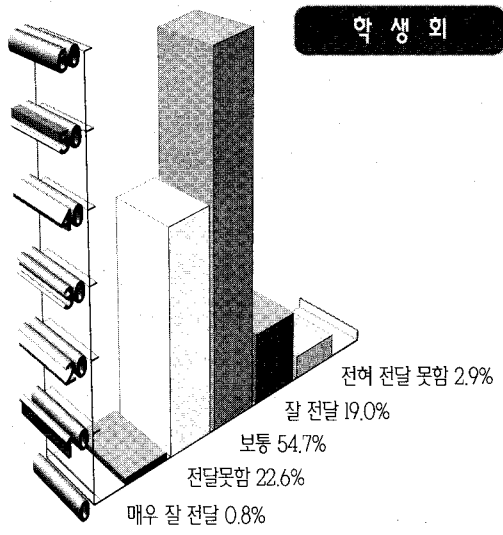




- 대학주보가 학교의 정책을 잘 전달합니까?
- 대학주보가 학생의 의견을 잘 전달합니까?
- 대학주보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잘 전달합니까?



학생회 의견 반영 '부족한 편'

학교정책 및 논평기사 비교적 쉽게 전달

〈1면에서 이어짐〉

덧붙여 '대학주보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잘 전달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32.6%가 '잘 전달한다', 52.4%가 '보통', 13.1%가 '전달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자체적 의견은 비교적 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주보 기사에 만족하는 사람들 142명 중에 대학주보 나름대로의 의견이 지면에 잘 전달된다고 답한 학생은 72명이고 전달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은 9.6%에 해당하는 8명에 불과했다. 반면, 기사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 55명 중 대학주보 나름대로의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명이다.

독자들의 대학주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학주보를 본 경

험이 있는 사람들 589명 가운데 대학주보에 만족하는 사람은 141명, 불만족하는 사람은 49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주보에 불만족하는 사람들 56명 중 드물게라도 대학주보를 보는 학생은 49명으로 대학주보는 비율과 만족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PC 통신으로 대학주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응답자 6명을 제외한 전체 628명 중 429명으로 78.3%를 차지한다. 이는 항상 보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 한두 번 보는 사람을 합한 21.7%의 4배 가까운 수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직은 대학주보를 인쇄매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16일자, 3월 30일

자, 4월 13일자 대학주보를 통해 주요 기사의 만족도 추이를 알아보고자 설문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설문 결과로 학생들이 대학주보 기사에 대해 갖는 세부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번 설문문의 기준으로는 기사의 가치와 흥미를 선정했으며,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만족도를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세시봉'과 '사설' 등이 포함된 논평기사의 경우, 학교 내부가 아닌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학주보만의 논조를 담은 기사가 가치나 흥미 면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사설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에 대해 논한 '위기의 한국'이 학부제에 대한 사안을 다룬 3월 30일자의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에 비해 흥미나 가치 부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면 기획기사와 2면의 Top 기사를 포함한 보도기사와 관련한 평가 결과를 보면, 두 기사는 대체로 가치나 흥미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도 이제 적성따라 간다', '장기적인 학부제 모델 필요하다', 'D학점 이수강 쉬워진다', '취업 비상 끝이 보이지 않는다' 등은 '대학위기, 효율적 예산집행이 비상구', '서울 전학대회, 수원 확대 운영위 미진한 성사', '교내 개설 홈페이지 평가 71% 수준 미달' 등의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사에 좋은 평가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면 보도기사의 경우, Top 기사를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는 2면에서 학생들 전체가 아닌 부분에게 필요한 기사까지 다루다 보니 나타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소리'를 통해 대학주보 여론란을 평가해 보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호수의 경우가 반응이 훨씬 높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로 전 부총장, 교수, 교직원 등의 글이 실린 3월 16일자와 3월 30일자 여론면에 비해 학생들만의 목소리를 담아낸 4월 13일자가 가치

나 흥미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만 보아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또한 설문대상을 학내 구성원 가운데 학생에만 국한시킨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월 13일자 열린소리의 내용이 다른 호 대학주보에 비해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관심있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기타 'PC 통신원', '테마기획', '경희의 이름으로', 'Free Style', '사회기획', '학술기획'을 대상으로 한 기획기사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이 학내의 전반적인 문화를 다룬 'Free Style'과 문화면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다른 주제에 따라 흥미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Free Style의 경우 3월 16일자의 '이름'과 4월 13일자의 '선'에 비해 3월 30일지에서 다른 '벤치'에 대한 평가가 더욱 좋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16일지에서 MT에 대해 다룬 테마기획에 비해 3월 30일자의 통일기획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무리 무거운 주제라도 독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게 구성한다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강남이 기자〉

사설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대학주보가 창간 43돌을 맞았다. 오늘 지령 1146호를 간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연륜으로 보나 양적, 질적인 면으로 보나 국내 굴지의 대학언론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올해 입사한 47기 대학기자를 포함하여 대학주보가 배출한 학생기자출신 동문만도 4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주보를 거쳐간 졸업생들은 현재 각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에 입사하여 취재와 편집의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주보는 정론직필을 기본정신으로 경희역사의 기록자로서 구성원들의 정보 제공자로서, 여론을 선도하는 항도자로서, 아가페미움을 지키는 파수자로서 43년이라는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러나 숨들릴 겨를도 없이 새 천년을 준비하는 세기를 맞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가 부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90년대의 대학은 일종의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다. 그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며 더 큰 폭의 개혁다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대학도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학주보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으며 개혁은 개혁하는 자의 몫이다. 최근 몇년 동안 대학주보도 프리 스타일의 신설, 경희의 이름으로, 지역·의료원관 등 색선의 다양화를 꾀하여 편집의 혁신을 추구해왔고 1면의 칼라화, 지점의 향상 등 인쇄의 혁신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좀더 발전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세계화 정보화에 발맞춰 뉴 미디어부문을 신설하여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전자신문의 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로 학내 언론매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셋째로 특수대학원 등 정보 소외지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로 43주년을 기념하여 가로쓰기와 신세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제호를 만들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이 고자 한다.

얼굴을 변화시키는 만큼 지면 내용 또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이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 대학주보도 21세기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은 내내이면 50주년을 맞는다. 100년을 내다보는 50주년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보도와 풍부한 정보, 건강한 비판과 충실한 편집으로 더욱 신선한 감각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대학별곡 제 3계명 대동제편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먼 길을 걸어와준 것은 경쟁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벗들이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은 경쟁과 승부들. 그 안에서 혹시 함께함의 소중함마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학마다 대동(大同)의 분위기로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서로 가슴 맞닿 수 있는 젊음의 특권, 손잡을 때 더욱 커지는 서로의 힘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터놓고 젊음이답게 마음껏 어울려보십시오. 그 소중한 경험히, 여러분이 먼 길을 가는 동안 두고 두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믿음직한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